■6·4 재보선 현장 누가 뛰나

영광군수

무소속 후보 7명, 민주당 후보 협공

29일 오전 11시 영광군 법성면 영광군 수협법성위판장 준공식 행사장. 6월 4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자원봉사자들, 유세 차량으로 행사장 앞이 떠들석했다.

가뜩이나 선거에 관심없는데다 시기마저 모내기가 피크를 이루는 때에 많은 지역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후보들에게는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지지 후보 번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위판장 앞 길 양쪽에 나란히 도열해 주민들을 상대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의 표정은 무심했다. 후보들의 유세를 귀담아 듣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다.

모두 9명이 후보등록을 한 영광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권을 따낸 정기호 후보를 무소속 후보들이 협공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신문 등의 여론조사와 민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정 후보가 우세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평가지만, '10년 넘도록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반 민주당 기류도 느껴졌다. 무소속 후보들간 단일화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9일 조기상 후보가 장 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소속 후보들간 단일화가 구체화될 경우 적지 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후보는 "검증된 민주당 후보로 전문성과 도의원을 지내며 익힌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영광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가 알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영광군수출마자

이름	정기호	김규현	김성환	김연관	김천식	장 현	전태갑	최종걸
나이	53	57	55	65	66	51	66	45
소속	통합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경력	전 민주당 함평군·영광군지구당 부위원장	전 제3대 영광군 의회 의장(전반기)	전 호남일보 사장	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전 영광군수 후보	호남대 평생교육원장	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전 제17대 대통합신당 정동영후보 언론특보

정기호씨 "검증된 후보"에 김규현·장현씨 등 "인물론" 맞서

주민 무관심 속 무소속 후보들간 '단일화' 여부 막판 변수로

이에 맞서 무소속으로 나선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의장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일꾼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현 후보도 "매일 새벽부터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기보단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판단해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성환 전 호남일보 사장, 김연관 전 민주당 영광지역 위원장, 김천식 전 군수선거 출마자, 전태갑 전 전남대 교수, 최종걸 전 연합뉴스기자 등도 저마다 지역발전론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여야, 18대 원 구성 협상 돌입

정수 조정·상임위 배분 놓고 난항 겪을 듯

제18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에 따른 통합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 구성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8일을 넘기는 등 장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30일 원내대표 접촉을 통해 쌍방의 입장을 확인한 뒤, 그에 따른 협상 전략을 수립해 원내수석부대표 라인의 실무 협상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선 합의해야 할 사안은 상임위 조정 문제.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숫자를 기존 17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없애고 16개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과기정위와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15개로 축소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만큼 10개 안팎의 위원장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 양당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각종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최종 결정하는 법사위원장 배분 여하에 따라 원 구성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대 국회 개원 당시 소수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원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활한 입법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18대 국회 초반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위원장도 양측 모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책연대를 통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로 부상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가 1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유선호, 이낙연 의원 등이 당내 상임위원장 배정 상위 순번에 위치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끝내 무산

17대 국회 어제 폐막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끝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부터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아 17대 국회는 결국 파행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18대 국회로 넘길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혀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야당의) 당리당략으로 국익훼손을 초래한 무책임 국회가 됐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18대 국회 초반에 가서라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FTA 관련법안 24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는 30일부터 법정 임기가 개시되는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8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데다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한미 FTA 비준 절차는 6월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역위원장 자리다툼 치열

광주 남구 10명 최고 경쟁률

통합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가 28일 마감된 가운데 광주 남구, 목포,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지역 등 광주·전남 공모 대상 지역에 도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10명이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공모 대상 123개 전 지역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4개 지역 중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광주 남구.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는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각 계파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조직강화특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김화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이윤정 전 한전KDN감사, 이재천 민주당 사무부총장,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정재훈 동아병원 원장, 지병문 전 의원, 하승완 전 보성군수, 황일봉 남구청장.

◇**목포**=김종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 정영식 전 행정자치부차관, 정종득 전 목포시장.

◇**해남·진도·완도**=채일병 전 의원, 박창용씨.

◇**무안·신안**=곽광혜 4·9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주태문 민주당 조직국장, 황호순 전 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무안 기업도시 등 지역 현안 처리에 최선 다하겠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서갑원 의원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내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여 협상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서갑원 의원(순천)은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우선, 이명박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과 공조를 적절히 구사하며 광주·전남지역 현안 및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광주·전남 지역 정치인 가운데 한화갑 전 대표, 박상천 대표 등에 이어 원내 수석 부대표(과거 수석 부총무)를 맡은 서 의원은 "호남 정치권은 민주·개혁세력의 중심"이라며 "광주·전남 정치권이 분열의 상처를 딛고 화합, 민주당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생활과 패기있는 정치력으로 중앙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서 수석 부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전남의 발전과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